

정치적 관점에서 본 關羽 神格化的 歴史的 변모 양상 고찰

배규범* · 민관동**
(중국화중사범대학교)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蜀漢의 武將에서 출발하여 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관우의 생명력을 역대 왕조의 정치적 측면에서 찾았다. 관우는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일개 장군으로 묘사되었지만, 隋唐 시대를 거치며 武成王廟 從祀를 통해 국가 祀典에 편입되었고, 다시 宋元 시대에는 ‘侯’에서 ‘公’으로, 다시 ‘公’에서 ‘王’으로 신분의 급상승을 이루었다. 관우 신격화가 절정에 이른 明清 시대에 이르면, ‘王’을 넘어 ‘帝’로 등극하면서 三界를 통섭하는 최고의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그는 백성에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생활 신앙과 도덕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정신적 守護神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역사상 통치자가 關羽에게 내린 封號는 다양했지만, 그 속에는 국가의 재난 해소와 봉건 통치의 유지와 보호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주제어 : 관우(關羽), 관제(關帝), 무묘(武廟), 신격화(神格化), 충의(忠義)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하나의 상징물이 가지는 정치적인 역할은 그 상징에게 부여된 ‘權威’에서 출발한다. 통치계급으로 표현되는 사회 상층부와 그 상대편에 있는 일반 민중은 그 권위를 사이에 두고 自家의인 해석을 부여하게 된다. 즉,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 각기 다른 자신만의 정치적 관점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상징물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 채 ‘유연성’과 ‘애매모호성’¹⁾으로 확대 재생산해 나갈 힘을 얻게 된다.

전 아시아권을 통틀어 다양한 방면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關羽만한 것이 없다. 본고는 蜀漢의 武將에서 출발하여 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관우의 생명력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神格化’라는 말은 그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이 神의 경지였기에 붙일 수 있는 명칭이다. 무려 1800년 동안 무수한 왕조를 거치면서 신격화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 근원을 정치적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관우가 가진 정치적 역할은 그것을 만든 사회의 주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역사에서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토대가 갖는 특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²⁾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은 전통적으로 小農 經濟 체제 아래에 있었다. 가족 단위의 농민들은 낙후된 생산 도구로 비교적 낮은 생산규모를 가졌으며, 자연재해의 공습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낮은 방어능력은 착취와 억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었다. 결국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로 어진 임금과 신하, 그리고 神靈의 출현을 祈求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 어지러웠던 時勢에서 권력계층에 오른 이들은 중원의 쟁탈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그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확고한 호소력을 갖춘 존재가 필요했다. 반면 일반 민중들은 그들을 안정된 생활로 이끌 인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이

1) 장지연,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東郊 壇廟의 의미 변화-근대 先農壇과 東關王廟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6집, 2009, 42쪽.

2) 孫建輝, 「關羽 “武聖” 政治角色的建構—以量輪效應爲視角」, 中國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10~22쪽.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웅숭배의 전통, 종교적 신격화, 문학예술의 형상화라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낳았다.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 아래 관우 신앙은 정치적 역할을 형성해갔다.

관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범아시아적 인물’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중국 본토는 물론 그 영향권에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수많은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³⁾ 하지만 국내에서 관우 神格化 현상을 특정 분야로 집중시켜 논의한 경우는 흔치가 않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놓치기 쉬운 학술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사료를 점검함으로써 관우 신격화의 정치적 측면을 한층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적인 흐름 속에서 관우와 그에 대한 이미지를 통치자들이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 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의미와 권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정치적 성공 여부를 떠나 관우가 얻은 상징성은 현대에 까지도 유효하다. 그러기에 정치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II. 魏晉南北朝 시대 : 史傳에 묘사된 一介 將軍으로서의 관우

관우는 대략 160년~219년⁴⁾, 즉 三國時代 실존 인물이다. 과란만장했던

-
- 3) 關羽와 關羽信仰, 關羽 이미지 등으로 확장시켜 볼 때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 약 4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그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다.(中國知網 : cnki.net 기준) 한편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크게 關廟와 關羽信仰, 詩歌, 『三國志演義』와 판소리 및 공연예술 관련, 건축 및 기타 분야 등으로 나누어 약 80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 본고와 관련해서는 전인초(2006), 남덕현(2011a, b), 유상규(2011), 구은아(2012), 閔寬東(2015) 등의 논문이 돋보인다. 한편 단행본 책으로는 李慶善(1978)을 필두로, 金鐸(2004), 원정근(2014), 남덕현(2014), 이마이즈미 준노스케(2002), 타츠마 요시스케(2000) 등이 있어 많은 도움을 준다. 자세한 연구사 검토는 각주로 대신한다.
- 4) 일반적으로 관우는 출생은 미상이고, 사망은 建安24年(219)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마이즈미 준노스케는 『관우』(예담, 2002, 29~31쪽)에서 河南省 運城市 현지답사에서 향토연구가 孟海生(『運城日報』 문화부장) 씨 등의 연구를 토대로 160년 출생을 언급하였다. 孟海生은 『關帝志』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삼국지』의 여러 기록들에서는

삼국시대가 짧아 의해 통일되었지만, 이후 南北朝라는 동요와 분열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 시기는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극에 달했었다. 이는 백성의 고통과 반항으로 이어졌다. 한편 평민들과 일부 문인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武를 숭상하는 민족정신이 함께 일어나기도 했다.

이 시기 관우에 대한 언급은 三國時代 일개 장군으로서의 비중밖에 가지지 못했다. 혼란스런 사회에서 관우의 忠·義·勇은 특히 군인들을 중심으로 流傳되었다. 관우에 관한 기술도 刮骨療毒⁵⁾과 같이 勇을 강조하는 내용이 부각되는 데 그쳤다.⁶⁾

관우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史書는 陳壽(233~297)의 『三國志』「關羽傳」이 있다.⁷⁾ 陳壽의 「關羽傳」은 954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간략하다. 生年이나 家世 등 개인자료가 불명확하며, 수록된 부분도 관우의 일생 중 몇 단락에 불과하다. 아무래도 당시가 亂世인데다가 그가 평민 출신이라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敘事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관우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는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관우가 조조 군영에 있었던 시기에서부터 관우가 樊城을 포위하고, 七軍을 수장시키고, 于禁의 항복을 받아내고, 龐德을 목 베어 위세를 華夏에 떨치다 敗亡하기까지가 묘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서사 편폭의 확대를 통해 인물 관계와 충돌의 모습을 비교적 충분히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傳記 중에는 두 단락의 가십적 描寫, 즉 제갈량에게 馬超와 자신의 비교평가 해달라는 일과 刮骨療毒한 일이 수록

建安24年(219) 손권의 공격을 당해 아들 관평과 함께 臨沮에서 참수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 『吳書』「吳主傳」에는 建安24년 12월, 潘璋의 司馬 馬忠이 章鄉에서 관우를 잡았다는 기록이, 『魏書』「武帝紀」에는 曹操가 建安25年(220) 1월에 손권으로부터 관우의 머리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다. 이 자료만으로는 관우가 건안24년에 참수된 것인지 25년에 참수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 5) “살을 가르고 뼈를 갈아 독을 치료한다”는 말로, 흔히 관우의 담대함과 용맹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고사다. 『三國志演義』 第75回 「關雲長 刮骨療毒」 편에서 그때의 일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
- 6) 王欽若 編, 周勳初 校訂, 『冊府元龜』 卷395, 「將帥部·勇敢二」, 南京: 鳳凰出版社, 2006, 4687쪽. “長孫子彥, 西魏出帝時爲中軍大都督, 子彥少常墜馬折臂肘, 上骨起寸餘, 乃命開肉鋸骨, 流血數升, 言戲自若, 時以爲逾於關侯.”
- 7)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되어 있기도 하다. 陳壽는 다음과 같이 관우를 張飛와 함께 논하기도 했다.

관우는 卒伍에게 잘 대했지만, 士大夫에게 무례했다. 장비는 君子를 愛敬했지만, 小人을 동정하지 않았다.

(羽善待卒伍而驕於士大夫, 飛愛敬君子而不恤小人.)⁸⁾

관우와 張飛는 모두 萬人을 대적할 것이라 칭송받아, 세상의 虎臣이 되었다. 관우는 曹公에게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고, 장비는 의리 때문에 嚴顏을 풀어주었으니 모두 國士의 풍모를 가졌다. 그러나 관우는 군세면서 自矜心이 지나쳤고, 장비는 사나우면서 은혜를 베풀지 못했기에, 이런 단점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었으니 (세상)이치가 그런 것이다.

(關羽張飛皆稱萬人之敵, 爲世虎臣. 羽報效曹公, 飛義釋嚴顏, 並有國士之風. 然羽剛而自矜, 飛暴而無恩, 以短取敗, 理數之常也.)⁹⁾

이후 진수의 『삼국지』는 劉宋 元嘉6年(429) 완성된 裴松之(372~451)의 『三國志注』에 와서 훨씬 풍성한 내용을 갖추게 된다. 그의注는 『蜀記』, 『典略』, 『江表傳』, 『傅子』, 『吳曆』, 『魏書』 등의 각종 史籍는 물론 민간자료¹⁰⁾를 참고로 하여 완성했다.¹¹⁾ 거기다 개인적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보충의 의미가 강해졌다.¹²⁾

한편 이 시기 관우를 언급한 책으로 北魏 酈道元(470~527)이 쓴 『水經

8) 陳壽 撰, 위의 책, 871쪽.

9) 陳壽 撰, 위의 책, 877쪽.

10) 陳壽의 正文과 비교하면 裴注는 일종의 민간 서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돼지가 관우의 말을 문 일, 關羽가 徐晃과 대치하면서 나누는 戲劇性 對話, 관우의 집안이 滅族되는 등의 이야기에선 자못 신화적 색채를 띠고 있다.

11) 裴松之는 그의 「進書表」에서 作注의 몇 가지 體例 原則을 말했다. “첫째, 진수가 적지 않은 것 중 기록할 만한 것은 보충한다. 둘째,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말이 乖離하거나 혹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모두 기록한다. 셋째, 오류가 분명하거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교정한다. 넷째, 時事가 합당하지 않거나 진수가 실수한 부분은 내 뜻으로 論辨한다.” 陳壽 撰, 위의 책, 中華書局, 1982, 出版說明, 1쪽.

12) 華容道에서 조조를 쫓지 않은 관우를 칭찬했다든지, 許田에서 조조를 죽이지 않은 유비에 대해 “國家惜之”라고 반박한 것이라든지, 蜀吳 관계에서부터 孫權이 關羽를 침수한 것에 대한 추단이랄지 모두 인용된 고사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변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注』¹³⁾가 있다. 이 책은 人文地理書로서, 三國時代 人物들의 古跡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 관우와 관련된 곳은 모두 5군데이다.¹⁴⁾ 당시 이 지역 전설들에서 關羽는 그리 英勇스럽지만은 않게 묘사되고 있다. 또한 關羽 이야기는 당시 文人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兩晉 문인의 筆記小說, 예를 들어 葛洪(284~364)의 『抱朴子』·『神仙傳』, 裴啓(東晉)의 『語林』, 習鑿齒(?~384)의 『漢晉春秋』 등으로부터 劉義慶의 『世說新語』 등은 모두 三國人物의 言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關羽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¹⁵⁾ 關羽가 가진 勇猛과 忠義는 주로 軍隊에서만 流傳될 뿐이었다. 武將이라는 關羽의 身份과 그의 “驕於士大夫”한 性格과 상관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關羽는 史書나 類書, 地理書에서만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 통치자들의 시선을 거의 끌지 못했다. 다만 이 시기 관우는 建安5年(200) 백마성 전투에서 袁紹의 장군 顏良을 벤 공으로 曹操에 의해 ‘漢壽亭侯’에 봉해졌었다. 이는 당시 관우가 부득이하게 조조 막하에 있으며 세운 공에 대한 조조의 후의였다.¹⁶⁾ 그리고 死後에는 後主 劉禪에 의해 景耀3年(260) ‘壯繆侯’에 봉해졌다. 여기서 ‘壯’은 반란에 맞서 싸워 망설이지 않았

13) 朱謀瑋 箋, 王國維 校, 袁英光·劉寅生 標點, 『水經注校』, 北京: 中華書局, 2007.

14) ①위의 책(이하동일) 卷5, 「河水」, 159쪽. “又東北過黎陽縣南, …白馬城…袁紹遣顏良攻東郡太守劉延於白馬, 關羽爲曹公斬良以報效, 即此處也.”, ②卷28, 「湧水中」, 900쪽. “河水又逕平魯城南…東對樊, …建安中, 關羽圍于禁於此城, 會湧水泛溢三丈有餘, 城陷, 禁降, 龐德奮劍乘舟, 投命於東岡. 魏武曰:‘吾知於禁三十餘載, 至臨危授命, 更不如龐德矣.’”, ③卷32, 「沮水」, 1025쪽. “沮水又東南逕驢城西, 磨城東, 又南逕麥城西, 昔關雲長詐降處, 自此遂叛.”, ④卷34, 「江水二」, 1083쪽. “(江水)又南過江陵縣南……江水又東, 逕江陵縣故城南, ……舊城, 關羽所築, 羽北圍曹仁, 呂蒙襲而據之, 羽曰:‘此城吾所築, 不可攻也.’乃引而退.”, ⑤卷38, 「資水」, 1185쪽. “(資水)又東北過益陽縣北, 縣有關羽瀨. 所謂關侯灘也. 南對甘寧故壘. 昔關羽屯軍水北, 孫權令魯肅甘寧拒之於是水. 寧謂肅曰:‘羽聞吾咳嗽之聲, 不敢渡也. 渡則成擒矣.’ 羽夜聞寧處分, 曰:‘興霸聲也.’遂不渡.”

15) 焦磊, 「關羽神聖化過程的歷史考察—以關帝廟爲核心」,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7쪽.

16) 관우가 받은 ‘漢壽亭侯’는 “男 → 子 → 伯 → 侯 → 公 → 王 → 帝”의 官位 서열 중 4등급에 해당한다. 더욱이 侯에는 縣侯, 鄉侯, 亭侯, 列侯의 구분이 있으므로 관우가 받은 봉후는 4등급의 3품에 해당한다. 이는 그가 받은 최초의 봉호이다. 方北辰 注譯, 김원중 역, 『정사 삼국지』, 민음사, 2007

다, ‘繆’은 의리를 지키고 덕을 널리 폈다는 뜻을 담고 있다.¹⁷⁾

Ⅲ. 隋·唐時代 : 武成王廟 從祀를 통해 국가 祀典 편입

역사 인물로서 관우의 영웅적 사적은 隋·唐代에 이르면 점차 역사적 조류 속에 사라져갔다. 隋唐 五代는 중국의 봉건제 사회가 전성기로 들어가던 때였다. 통일된 사회면모와 융합된 인문정신은 사회 전반적으로 盛世의 문명을 지향했다. 관우는 上古時代 전쟁터를 누빈 장수이자 英雄과 같은 위치였다. 게다가 이 시기는 曹操의 魏나라를 正統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기에 唐나라 통치 집단은 文治武功을 창도하면서 蜀漢의 장수 關羽를 褒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唐代 “四大類書”로 꼽히는 虞世南(558~638)의 『北堂書鈔』¹⁸⁾ 가운데 관우에 대해 기록한 것은 겨우 1則, 그것도 『藝文部』 『好學』편에 나와 있을 정도다. 반면 민간에서 관우에 대한 신앙은 湖北省 荊州를 중심으로 地域神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었다.¹⁹⁾ 여기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관우의 신격화를 시도했던 불교와 도교의 역할이 있었다.

이 시기 정치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우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향 涿州에 있는 유비의 사당에 從祀된 것이다. 蜀王 劉備가 건국 대업을 완수했고, 관우와 장비도 평생 그를 따르며 공을 세웠으니 그들

17) 朱一玄 等 編, 『三國演義資料彙編』, 『謚法』,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3, 552쪽. “名與實爽曰繆”(穆與繆通). 郎瑛, 『七修續稿』 권4(타즈마 요시스케, 『영웅의 역사』 6권, 숲, 2000, 75쪽에서 재인용). “壯爲克亂不遂, 穆爲執義布德.”

18) 唐代 虞世南이 찬한 현존 最古의 漢族 類書이다. 類書는 三國 魏文帝 敕 劉劭, 王象 등에게 칙령으로 편찬케 한 『皇覽』에서 시작되었다. 魏晉 이후 역대 왕조는 항목을 나누고 檢閱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누차 屢屢組織 人力과 物力를 투입해 정부 보관문서를 점검해서 거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逸失되었다. 歐陽詢 등이 편찬한 『藝文類聚』, 白居易가 편집하고 宋人 孔傳이 續輯한 『白氏六帖』, 徐堅 등이 撰集한 『初學記』와 함께 唐代 “四大類書”로 꼽힌다. 虞世南 撰, 『北堂書鈔』, 北京: 學苑出版社, 1998.

19) 관우와 관련된 최초의 碑文 기록인 董挺의 「荊南節度使江陵尹裴公重修玉泉關廟記」(董誥 編, 『全唐文』 卷684, 北京: 中華書局, 2013, 7001쪽)에는 “寺西北三百步, 有蜀將軍都督荊州事關公遺廟存焉.”라는 기록이 있다.

이 유비의 사당에 함께 배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²⁰⁾

두 번째는 강태공을 모신 武成王廟에 64명 중 한 명으로 配享된 것이다. 武廟와 관우의 관계는 그의 신격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 祀典에 편입됨으로써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흠향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武成王廟는 唐太宗貞觀年間(627~649) 姜太公(薑子牙)이 낚시를 하던 곳인 播溪에 武廟를 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되었다.²¹⁾ 姜太公이 武聖으로 꼽히게 된 이유는 그가 『六韜三略』를 지었으며, 周 武王을 도와 통일대업을 완수했기 때문이다.²²⁾ 하지만 무엇보다 武廟에 대한 국가적 현장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갈수록 노골화되어 가는 북방 민족의 침략 야욕 앞에 장령과 사병들의 기세는 전투력과 직결에서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일정치 않은 제사 기간이나 제수 등 그 정치적 비중은 공자를 모신 文聖王廟에 비하면 비교가 힘들 정도였다. 이후 唐 玄宗代에 이르면 開元19年(731), 兩京에 太公尚父廟(武廟) 한 곳을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仲春과 仲秋, 上戊日에 釋奠을 지내고, 漢留侯 張良을 配享하였다. 이로부터 武神에 대해 국가가 본격적으로 崇祀하는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는 武將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란 단계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肅宗 上元元年(760) 閏4월에 이르게 되면, 강태공을 追封하여 ‘武成王’으로 삼고, 드디어 文宣王 孔子와 同格으로 南面하게 하였다. 그리고 역대 良將 10명을 뽑아 十哲²³⁾로 삼고 有司에게 명하여 제사지내게 했다.²⁴⁾ 이어 德宗 建中4年(783)이 되면, 또 조서를 내려 范蠡

20) 郭筠, 「蜀先主廟記」, 『唐文拾遺』 卷7. “(先主)崇於故里, 甘皇後配饗於神座之中, 諸妃嬪圖形於旋辰之後, 孔明孝直股肱, 皆列於東廂, 關羽、張飛爪牙, 悉標於西廡, 威生戶牖, 武耀庭除.”

21) 中敕 撰, 『大唐郊祀錄』 卷10, 北京: 民族出版社, 2000. “史籍無恒祭太公之文, 皇朝貞觀中始於播溪置祠.”

22) 이는 唐 德宗代 武廟의 대대적 확충을 놓고 벌인 文武 대립에서 문신 李紇가 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太公述作止於六韜, 勳業形於一代”(李紇, 「享武成王不當視文宣廟奏」, 『全唐文』 卷395).

23) “十哲”은 오른쪽으로 張良·田鑲直·孫武·吳起·樂毅이고, 왼쪽으로 白起·韓信·諸葛亮·李靖·李劫인데, 관우는 이 중에서 빠져있다.

24) 『新唐書』 卷15, 「禮樂五」, 北京: 中華書局, 1975, 375쪽. “禮儀使顏真卿上奏, 治武成廟, 請如『月令』春·秋釋奠. 其追封以王, 宜用諸侯之數, 樂奏軒縣.”

등 名將 64인을 뽑아 그 초상을 벽에 그리고 매년 釋奠 때 모두 從祀하게 했다.²⁵⁾ 이때에 비로소 관우가 武成王廟에 從祀된 것이다. 비록 關羽가 64명 중 左邊 第15位에 불과한데다, 周瑜·陸遜·張遼 등과 특히 生死를 건 마지막 전투를 했던 呂蒙과는 마주보고 있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가 祀典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²⁶⁾ 關羽가 武聖王廟에 配享된 것은 隋·唐代에 생겨난 관우에 대한 종교적 형태가 정치생활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송대 關羽 신앙의 본격적인 확립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얄튼 武成王廟 從祀는 관우 신격화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IV. 宋·元時代 : ‘侯’에서 ‘公’으로, 다시 ‘公’에서 다시 ‘王’으로

隋·唐代와 그 이전의 관우에 대한 이미지는 일개 장군으로서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다. 이른바 형주지역을 중심으로 土地神이나 地域神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宋代에 이르게 되면 唐代의 凶神이미지가 남아 있었지만,²⁷⁾ 보다 활발해진 관우 숭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北宋 中葉 이후 佛教와 道教에서 관우가 神系로 유입되면서 朝廷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²⁸⁾ 이를 바탕으로 南宋과 元代 관우 숭배는 官方祀典 중에

25) 中敕 撰, 앞의 책. “至肅宗上元元年閏四月, 又追封爲武成王, 移坐南面, 選曆代良將爲十哲, 令有司祭.”

26) 北宋 初期 “關羽爲仇國所擒”라고 하여, 武廟 陪祀의 位置에서 儼 적도 있었다. 『古今圖書集成』 卷37의 北宋 宣和5年(1123) 關羽에 대한 封을 구하고 아울러 武成王廟에 從祀하게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宣和5年 前에는 관우의 武成王廟 崇사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劉永華, 『關羽崇拜의 塑造與民間文化傳統』,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5年2期, 79쪽.

27) 洪邁 著, 『夷堅志』 卷9, 『支志』·『甲』, 『關王幟頭』, 北京: 中華書局, 1981, 782쪽. “在州治西北隅, 土人事之甚謹. 偶象數十軀, 其一黃衣急足, 面怒而多髯, 執令旗, 容狀可畏.”

28) 金井德幸, 『社神和道教』, 福井康順 等 監修, 『道教』 2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141~143쪽.

서도 그 지위가 한층 높아졌다.

앞서 언급한 武成王廟는 시행된 지 불과 5년 만에 폐지되었다. 德宗이 建中2年(781) 내린 武成王廟 보수공사에 대해 문신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德宗 貞元4年(788) 8月13日 兵部侍郎 李紆는 上疏하여 太公과 孔子가 나란히 앉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²⁹⁾ 이런 논쟁 중 또 武將 令狐建 등 24인이 지금 예에 따라 결정할 것을 청하였다.³⁰⁾ 이렇게 文武 간의 대립이 팽팽해지자, 결국 德宗은 上將軍 이하 充獻官에게 칙령을 내리고 그 외의 것들은 李紆가 주청한 대로 실행하게 했다. 武廟 제도의 폐지였다. 하지만 그 뒤 宋代 仁宗 慶曆年間(1041~1048)이 되자 武廟 제도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이는 明 太祖 洪武21年(1388)까지 지속되었다.

禮部の 奏請 下에 徽宗은 武成王廟에 從祀하게 하였다.
(令從祀武成王廟.)³¹⁾

위 기사는 宋代 徽宗 宣化5年(1123), 관우가 武成王廟에 다시 從祀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때 武廟에 從祀한 武將에 대한 制度 역시 회복되었다. 당시 從祀된 武將은 72위로 증가했다. 그 중 關羽는 西廡 第14位에 배향되었다. 唐代와 비교해볼 때, 武成王廟 중 關羽의 地位는 별다른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각 계층의 관우에 대한 인식은 송대에 이르면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우선 宋代 史書에서 등장하는 관우의 모습이 달라졌다. 우선 鄭樵(1104~1162)가 지은 「關羽傳」은 서두에서부터 관우가 『左氏春秋』을 애호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관우가 단순한 勇將이 아니라 『春秋』를 통해 文武를 갖추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는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대목

29) 李紆, 「享武成王不當視文宣廟奏」, 『全唐文』 卷395. “伏以文宣垂教, 百代宗師, 五常三綱, 非其訓不明, 有國有家, 非其制不立, 故孟軻稱生人已來, 一人而已……且 太公述作止於六韜, 勳業形於一代, 豈宜擬諸盛德, 均其殊禮.”

30) 劉海燕, 앞의 논문, 27쪽. “當今兵革未戩, 宜崇武教以尊古, 重忠烈以勸今. 欲有貶損, 非激勸之道也……故文武二教, 猶五行之迭用, 四時之代序. 固宜並立, 廢一不可, 況其典禮之制, 已曆二聖, 今欲改之, 恐非宜也.”

31) 陳夢雷 撰, 『古今圖書集成』 卷37, 『關聖帝君部』, 北京: 中華書局, 1934, 29쪽下.

에서도 확인된다.

“장료는 드디어 (조조에게) 아뢰었다. 조조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그 근본을 잊지 않으니 天下의 義士다. 언제쯤 갈 것 같으니?’ 장료가 대답했다. ‘공의 은혜를 받았으니 반드시 공을 세우고 그것을 갚은 뒤에 갈 것입니다.’

(遼遂白之, 操曰: ‘事君不忘其本, 天下義士也. 度何時能去.’ 遼曰: ‘受公恩, 必當立效報功而後去.’)³²⁾

작자는 관우가 공을 세워 조조의 은혜에 보답을 표시한 뒤 떠나는 대목에서 裴注에서 언급한 張遼의 심리를 傳文 속에 삽입하고 있다. 여기서 조조는 관우의 義에 대해 “天下義士”라는 말로 칭찬했다. 鄭樵는 관우가 조조의 후한 禮를 사양한 것도 그의 春秋大義, 즉 劉備에 대한 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모습은 또 다른 傳인 蕭常의 「關羽傳」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된다.³³⁾ 여기에는 송대에 이미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두된 蜀漢正統論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北宋의 문호 蘇軾이 보여준³⁴⁾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를 차지하더라도, 朱熹에 의해 언급된 ‘帝蜀寇魏’ 사상은 유가 문사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³⁵⁾

32) 鄭樵 撰, 『通志』 卷180, 「關羽傳」,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7. “關侯字雲長, 本字長生, 河東解人也. 好左氏傳, 諷誦略皆上口.”

33) 蕭常 編, 『續後漢書』 卷9, 「關羽傳」, 濟南: 齊魯書社, 2000. 宋代的 두 史傳과 陳壽 『三國志』의 文字風格은 서로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각기 다른 裴注를 傳文에 직접 삽입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있다. 그 결과 미세한 차이지만 관우의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났다. 작자의 취사태도에 따라 관우에 대한 評價는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두 전의 인물 칭호가 달라졌다. 曹操에 대해 『三國志』에서는 曹公이라 했지만, 두 傳에서는 모두 曹操라고 바로 이름을 불렀다. 한편 「鄭樵傳」에서는 관우를 關侯, 「蕭常傳」에서는 劉備를 昭烈이라고 했다. 劉海燕, 앞의 논문, 2002, 40쪽.

34) 蘇軾 編, 『東坡志林』 卷1, 「塗巷小兒聽說三國語」, 北京: 中華書局, 1981, 7쪽. “塗巷中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 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輒蹙有出涕者; 聞曹操敗, 即喜唱快.”

35) 朱熹는 『通鑑綱目』 등의 저서에서 蜀漢正統論의 攄양스를 많이 풍겼다. 包詩卿, 「明代關羽信仰及其地域分布研究」,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12쪽. 이 외에도 朱熹는 독서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관우의 예를 드는 등 유독 관우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래서인지 宋代 文人들이 지은 ‘題詠碑記’ 중에서 관우의 忠義와 英勇을 칭송한 대목이 자주 보인다.

獨 先主가 구구하게 그 힘은 부족했지만 그에 대항하였지만, 자주 졌다. 이때의 선비들은 去就之計를 품고 주인을 선택해 그를 섬겼는데, 진실로 忠義大節에 밝지 않다면 어찌 강한 것에 대항하고 약한 것을 도우며, 편안함을 버리고 위험한 곳에 나갈 수 있었겠는가! 무릇 爵祿富貴는 사람들이 몹시 바라는 바이거늘, 萬鍾 보기를 초개처럼 가볍게 여기니, 千乘을 匹夫보다 친하게 여김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이겠는가! 忠이 다하고 義가 勝했을 뿐이다.(獨先主區區欲較其力而與之抗, 然屢戰屢敗矣. 士於此時懷去就之計者, 得擇主而事之, 苟不明於忠義大節, 孰肯抗強助弱, 去安而即危者. 夫爵祿富貴, 人之所甚欲也, 視萬鍾猶一芥之輕, 比千乘以匹夫之賤者, 豈有他哉! 忠盡而義勝耳.)³⁶⁾

鄭咸이 지은 「元祐重修廟記」의 일부다. 그는 關羽가 조조 등 권세가에게 붙지 않고 爵祿富貴도 사모하지 않았으며, “抗強助弱, 去安而即危”한 “忠義大節”로 언급했다. 관우의 忠義的 특징이 형성된 시기는 바로 北宋부터라고 할 수 있다. 南宋은 金나라의 힘에 밀려 결국 南下하여 왕조를 이어갔다. 이때는 중국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군사력으로 인해 북방민족으로부터의 치욕과 위협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자연 민족은 분열되고 민심이 동요되었다. 그러기에 송나라를 위해 적에 저항할 수 있는 武力과 忠勇의 정신이 더욱 필요했다. 關羽의 忠義 정신은 남송시기에 숭상한 民族氣節과 잘 어우러짐으로써 關羽 숭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토양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關羽의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忠義的 이미지 또한 확립되었다.³⁷⁾

이런 사회정치적 요구는 이민족의 압박에 항거하는 민족 주체 의식과 만나

朱熹 著, 『朱子語類』卷52, 北京: 中華書局, 1986, 1262쪽. “讀書理會義理, 須是勇猛徑直, 理會將去, 正如關羽擒顏良, 只知有此人, 更不知有別人, 直取其頭而歸.” 趙山林, 「南北融合与关羽形象的演变」, 『文學遺產』2000年04期, 111쪽.

36) 蔡東洲 等 著, 『關羽崇拜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1, 100쪽.

37) 이 외에 南宋 때 南濤가 지은 「紹興重修廟記」에서도 관우가 유비에 대해 가졌던 “忠義大節”을 진정타에서의 용맹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齊魯師範學院學報』第27卷第5期, 2012.10, 152쪽.

당시 사회적 심리로까지 발전했다. 대중의 심리는 史書와 野史, 그리고 민간 전설의 기초 위에 關羽의 ‘剛勇、忠義、儒雅’한 개성과 합쳐져서 관우 숭배라라는 사회적 현상을 낳았다. 통치자들은 이런 점을 놓치지 않았다. 통치자들은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관우에 대한 加封을 부단히 시행했다. 북송 중엽 이후 宋왕조는 날로 弱化一路 속에 있었다. 蜀漢의 勇將으로 強敵을 두려워않는 정신과 關羽 자신의 勇武、忠義의 특질은 통치자의 심리적 요구에 부합했다.

송대 제왕 중 관우에 대한 追封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북송 9대 徽宗(재위 1100~1125)이었다. 그는 재위 기간 중 무려 5차례 걸쳐 관우에 대한 追封을 시행했다. 그는 북방에서 거란족인 遼와 여진족인 金이 세력을 떨쳐 압박해오자 崇寧1年(1102) 관우를 ‘忠惠公’에 봉하였다. 이는 관우가 ‘侯’에서 ‘公’으로 격상된 첫 번째 예다. 강력한 도교 신봉자였던 휘종은 崇寧3年(1104) 正一派 도사들의 건의에 따라 관우에게 ‘崇寧眞君’의 시호를 추증했다.³⁸⁾ 즉, 관우가 解州 鹽池에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요괴를 물리치고 재앙을 없애주었다는 주장에 부응한 것이다. 崇寧4年(1105)에는 ‘崇寧至道眞君’으로 고쳐 부르고, 大觀2年(1108)에는 ‘武安王’으로 봉해 ‘公’에서 다시 ‘王’으로 격상시켰다.³⁹⁾ 宣和5年(1123)에는 ‘義勇武安王’으로 봉하면서, 드디어 武成王 강태공의 신분을 능가하게 되었다.⁴⁰⁾ 南宋代에도 關羽 追封은 이어졌다. 1대 高宗은 建炎2年(1128)과 建炎3년에 각각 ‘壯穆義勇王’, ‘壯繆義勇武安王’을 봉했으며, 2대 孝宗은 淳熙4年(1177)에 ‘英濟王’을, 淳熙14年(1187)에 ‘壯繆義勇武安英濟王’에 봉했다.⁴¹⁾ 통치자의 關羽 追封은 일반 백성들의 신앙 대상인 관우를 숭앙함으로써 백성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한편, 관우의 유비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를 백성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었다.⁴²⁾

38) 盧曉衡 主編, 『關羽關公和關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82쪽; 李漢, 『星湖僊說』 제9권 「關王廟」.

39) 徐松 撰, 『宋會要輯稿』, 「禮之二十」.

40) 盧曉衡 主編, 앞의 책, 82쪽.

41) 盧曉衡 主編, 위의 책, 2002, 195쪽.

42) 유상규, 「韓·中 關帝信仰의 史的 展開와 傳承 樣相」,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송의 뒤를 이은 金과 元은 기본적으로 漢族의 종교를 수용하여 정책에 응용했다. 특히 몽골족 정권인 원나라 조정은 정책적 차원에서 관우 신앙을 확대시켰다. 즉, 원의 통치자들은 漢族을 원활하게 통치하고 교화하기 위해 몰락한 宋의 귀족이나 유력자들의 협조를 구해야 했고, 이런 맥락에서 宋代 護國神으로 추봉된 관우를 수용했다. 그리고 관우 신앙은 피지배계층의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유용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려되었다. 그 결과 관왕묘가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곳곳에 설립되었고, 관제신앙에 대한 책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元代 관우 祠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관우는) 解梁人으로 琢郡에서 義學하였고, 徐充에서 戰爭을 했으며, 冀豫로 달아났고, 江淮에서 공을 세웠다, 荆楚에서 죽었다. 그 英靈하고 義烈함이 天下에 퍼졌기에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福善禍惡하는 神威가 빛나시니 사람들이 모두 敬畏한다. 燕趙荆楚 지방에서 더욱 돈독하되, 郡國州縣과 鄉邑間井에 모두 사당이 있다. 夏5月13日, 秋9月13일은 큰 제사를 지냈다. 儀仗을 整盛하게 하고, 旌甲과 旗鼓를 세우고, 長刀와 적토마를 생전처럼 엄숙하게 마련한다. 천년 뒤에 仰慕하길 지금과 같이 할 것이니, 하물며 漢季의 遺民들은 말해무엇하겠는가!

(解梁人, 起義於琢郡, 戰爭於徐充, 奔走於冀豫, 立功於江淮, 而殘於荆楚. 其英靈義烈遍天下, 故在所廟祀, 福善禍惡, 神威赫然, 人咸畏而敬之, 而燕趙荆楚爲尤篤, 郡國州縣, 鄉邑間井皆有廟. 夏五月十三日, 秋九月十有三日, 則大爲祈賽, 整仗盛儀, 旌甲旗鼓, 長刀赤驥, 儼如王生. 千載之下, 景仰向慕, 而猶如是, 況漢季之遺民乎!)⁴³⁾

元代 문인 郝經이 蒙古 海迷失後 元年己酉(1249)에 쓴 「漢義勇武安王廟碑」의 내용이다. 관우의 英靈과 義烈이 천하에 퍼져 전국의 마을에 모두 그의 사당이 있었다.⁴⁴⁾ 이는 宋代보다 진전된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2011, 15쪽.

43) 郝經 著, 『郝文忠公陵川文集』 卷33,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2006.

44) 이 외에도 析津의 關廟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城隍堂의 종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 그 중에서 관우는 監壇之神을 맡았다. 당시 관우 숭배에 대한 민속을

元代에는 관우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저술이 등장한다. 바로 胡琦⁴⁵⁾의 『關王事跡』이다.⁴⁶⁾ 『玉泉寺志』에 저술 동기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元 仁宗 延祐3年(1316) 봄, 山西 太原平遙 梁轆(字 仲祿)이 當陽의 책임자가 되어 왔다가 胡琦의 명성을 듣고 연회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선조 瓊公이 關聖 顯靈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주자, 胡琦가 감동해서 『關王事跡』을 지었다는 것이다. 『關王事跡』은 일종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저술이다. 관우 生前의 事跡과 死後의 顯靈 기록, 그리고 역대 關王 封祀와 廟記와 碑記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실로 明清代 關羽 聖跡 書籍의 원천이 되는 책이다. 胡琦가 이 책을 編撰한 것은 관우의 義勇忠節을 사모하고, 허탄한 얘기라고 묻혀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라고 했다.⁴⁷⁾ 관우는 南宋 사회 동요 시기로부터, 그 忠勇精神으로 인해 여러 神 가운데 발탁되어, 民族氣節과 精神의 대표가 되었다. 더욱이 宋나라 遺民들의 심리상태에 부합되었다.

한편 원대 제왕의 추봉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8대 文宗이 天曆元年(1328)에 내린 ‘顯靈義勇武安英濟王’⁴⁸⁾이 전부이다. 이에 반해 民間에서의 칭호는 아주 인상적이다. 「武安王封號石刻」(1331)⁴⁹⁾과 「關廟詔」(1353)⁵⁰⁾

엿볼 수 있다. 熊夢祥 著, 『析津志』, 「祠廟·儀祭」,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3, 57쪽. “……武安王廟, 南北二城約有廿餘處, 有碑者四. 一在故城彰義門內黑樓子街, 有碑. 自我元奉世祖皇帝詔, 每月支與馬匹草料, 月計若干, 至今有怯薛寵敬之甚. 國朝常到二月望, 作遊皇城建佛會, 須令王監壇. 一在北城羊市角北街西, 有碑二, 記其靈著. 一在太醫院前, 揭曼碩有記.”

45) 저자 胡琦에 대해서는 『玉泉寺志』 『列傳』에 보인다. 『玉泉寺志』, 當陽玉泉寺, 2014. “胡琦, 字漳濱, 當陽人也, 系宋胡安國之云(疑誤), 仍『荊志』安國有宅在北門外新店, 宋末廢落, 元詔復其家. 琦因奉文定, 祀居當陽之漳濱鄉, 故號漳濱也. 克守家訓, 不樂仕進. 州郡征辟者, 皆不就. 延祐三年春, 山西太原平遙梁公轆字仲祿者, 宰當陽, 慕琦名, 延之, 乃館於琴堂, 公言其先祖瓊公蒙關聖顯靈平武仙賊, 琦感於心, 乃撰『關王事跡』, 後以壽老於家.”

46) 胡琦 撰, 『關王事跡』, 北京: 文物出版社, 2000.

47) 劉海燕, 앞의 논문, 39쪽.

48) 劉海燕, 위의 논문, 36쪽. “加封漢將軍關羽爲顯靈義勇武安英濟王, 遣使祠其廟”

49) 沈濤 撰, 『常山貞石志』 卷20, 「武安王封號石刻」, 『歷代碑志叢書』 第2冊,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13523쪽.

50) 胡聘之 撰, 『山右石刻叢編』 卷38, 「關廟詔」, 『石刻史料新編』 第20~21冊, 台灣: 新文

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은 관우에게 ‘效封齊天護國大將軍 檢校尚書 守管淮南節度使 兼山東河北四門關鎮受招討使 兼提調遍天下諸宮神殺無地分巡案管中書門下平章政事 開府儀同三司 紫金光祿大夫 駕前都統軍 無侈侯 壯穆義勇武安英濟王 護國崇寧真君’라는 긴 稱號를 붙였다.

이 외에도 元代에 이미 關帝라는 호칭을 사용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清代 吳仰賢은 『小鮑庵詩話』를 집필하면서 元代 시인 張憲의 시를 인용했다. 그 시에는 “張侯生冀北, 關帝出河東.”라는 구절이 있다.⁵¹⁾ 관우를 이미 關帝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우가 ‘王’에서 ‘帝’로 격상된 시점은 明나라 神宗으로부터 ‘協天護國忠義大帝’를 봉호로 받은 萬曆18年(1590)으로 알려져 있다. 明代에 가서야 본격적인 關帝信仰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元代의 공식문헌에서 關羽에게 帝의 봉호를 내렸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사대부와 민간에서 그리했으리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V. 明·清時代 : ‘王’에서 ‘帝’로, 武廟의 主神으로 등극

明代는 관우 이미지가 질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다. 隋·唐의 시작기를 출발로 宋·元의 형성기를 거치면서 관우는 이미 일개 武將에서 神靈으로 변해갔다. 이제 세상의 아녀자들이나 아이들조차도 모두 알고 기원하는 至高의 절대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더군다나 明初부터 중대 군사 활동 중에는 관우의 陰助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太祖 朱元璋과 陳友諒이 鄱陽湖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關王의 도움을 받은 것⁵²⁾이나, 3대 成祖 朱棣

豐出版公司, 1982, 15825쪽.

51) 王齊洲, 「論關羽崇拜」, 『天津社會科學』 1995年6期, 81쪽.

52) 劉錦藻 撰, 『清朝續文獻通考』, 台北: 新興書局, 1959. “太祖高皇帝平定天下, 兵戈所向, 神(關羽)陰佑爲多, 及定鼎金陵, 乃於雞鳴山建廟以崇祀, 載在祀典.”; 『關帝事跡征信編』 卷14, 『靈異』. “明太祖既定天下, 將建廟於雞鳴山以事神, 夜夢關羽以鄱陽助戰論功, 明日遂勅工部建廟於雞鳴山, 特賜英靈坊以表之.” 이 외에도 한국 측 기록으로는 다음 자료가 있다. 李瀾, 『星湖僿說』 제9권, 「關王廟」,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56쪽; 許筠, 「勅建顯靈關王廟碑」, 金昌鎬 著, 『海東聖蹟誌』 卷2, 『藝文考』.

가 本雅失理를 정벌할 때 관우 陰兵의 도움으로 北征에 성공한 것⁵³⁾이 그 좋은 예다.

明代 관우 숭배의 전체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太祖 朱元璋이었다. 朱元璋은 농민 봉기의 영수로서, 蒙古人의 통치를 뒤집고 한족 정권의 건립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그는 元代 이후의 제도를 ‘오랑캐제도(胡制)’로 보았다. 그리하여 건국 이래 儒敎的 原理主義 관념에서 출발한 대규모 禮制 개혁을 단행했다. 朱元璋은 각지에 명령을 내려 歷代 帝王의 陵寢과 관련된 정황을 중앙에 보고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洪武3年(1370) 6月, 朱元璋은 원리주의 색채가 충만한 ‘神號改正詔’을 반포했다.

歷代 忠臣과 烈士는 당시 처음 봉해진 것을 實號로 삼되, 후세에 지나치게 찬미된 칭호는 모두 革去한다. 오직 孔子처럼 先王을 밝힌 중요한 道는 天下의 스승으로 삼아 후세를 구제케 한다. 한 지역 한 때에 공이 있는 자로 따를 만하지 않으면 모든 封爵은 마땅히 옛것으로 돌아가되, 神人之際는 명분이 정당하고 말이 사리에 맞게 하고, 이치에 맞춰 바꾸어 짐이 예로 귀신을 섬기는 뜻에 걸맞게 하라.

(歷代忠臣、烈士, 亦依當時初封以爲實號, 後世溢美之稱, 皆宜革去. 惟孔子善明先王之要道, 爲天下師, 以濟後世, 非有功於一方一時者可比, 所有封爵, 宜仍其舊, 庶幾神人之際, 名正言順, 於理爲正, 用稱朕以禮事神之意.)⁵⁴⁾

즉, 太祖는 宋元代에 하사한 공과 王의 봉호는 모두 혁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謚美之稱”을 버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치에 맞춰 祀典을 바로잡는다(厘正祀典)”는 기준과 관련하여 孔子를 제외하곤⁵⁵⁾ 唐宋 이후

53) 俞憲纂, 『獲鹿縣志』卷4, 『祀典』, 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續編本. “餘嘗遍遊齊魯燕趙, 又西過太行, 涉晉代關隴之墟. 父老往往言, 時遇邊徼■患, 矢石交下, 煙沙茫茫, 或風雨震凌, 我軍危急, 將士心悼■愕, 衆口歡祝, 即在空中若見侯靈旗羽蓋, 神光閃爍. 俄頃, 虜遂驚潰以去.”

54) 『皇明詔令』卷1, 「初正山川並諸神祇封號詔」. 朱海濱, 「國家武神關羽明初興起考—從薑子牙到關羽」, 『中國社會經濟史研究』2011年1期, 88쪽.

55) 孔子의 ‘大成至聖文宣王’이란 號도 嘉靖年間(世宗1522~1566) 실시된 禮制改革 중 결국 폐지된다.

로 수여받은 神靈封號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때 關羽廟의 本稱도 그가 生前에 漢獻帝로부터 수여받은 ‘漢壽亭侯’라는 封號에서 따온 ‘(漢前將軍)壽亭侯廟’로 격하되었다.⁵⁶⁾ 하지만 洪武3年是 전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던 때라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기에 兵家の 사기를 고려해 그들이 섬기는 武成王 祭祀와 그 봉호는 곧장 폐할 수 없었다.⁵⁷⁾

洪武21年(1388), 朱元璋은 역대 제왕묘의 從祀 제도에 대해 진일보된 정리와 확충을 시도했다.

처음 歷代名臣 중 終始 全節한 자 37인을 兩廡에 從祀하고 四壇으로 진열했다.……太公望은 從祀됨으로써 자신의 옛 사당과 武成王이란 봉호를 잃었다.

(始定歷代名臣終始全節者三十七人從祀兩廡，列爲四壇。……而太公望以從祀，罷其故廟及武成王號.)⁵⁸⁾

太公望의 ‘武成王’이란 封號는 唐 肅宗이 수여한 봉호다. 이를 계속 채용

56) 기존의 많은 논의에서 태조가 격하시켜 다시 내린 관우의 봉호를 ‘漢壽亭侯’라고 하는데, 실상은 ‘壽亭侯’가 맞다. 이후 제11대 世宗 嘉靖10年(1531)에 이르러, 南京 太常寺 少卿 黃芳의 건의에 의해 明初에 내린 ‘壽亭侯’ 봉호를 ‘漢壽亭侯’로 개정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는 “漢壽는 犍爲(四川)에 있는 縣名이며, 漢壽는 封邑이고, 亭侯는 봉작의 통칭 작위이기에 ‘漢壽亭侯’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清代의 고증학자 趙翼은 『陔餘叢考』(北京：中華書局, 2006)에서 關羽를 봉한 “漢壽”은 四川 犍爲가 아니라 湖北 武陵이라 수정했다. 田藝衡, 『留青日劄』 卷10, 「漢壽亭」. “臣考之前少詹事程敏政言, 漢壽, 縣名, 在犍爲. 史稱 ‘費遇害於漢壽’. 唐詩亦有句曰 ‘漢壽城邊野草春’. 是漢壽者, 封邑; 亭侯者, 爵也. 今『大明會典』亦只稱 ‘壽亭侯’, 去 ‘漢’, 而以 ‘壽亭’ 爲封邑, 誤矣. 嘉靖十年八月, 家大夫在禮部覆議云: “按『後漢書』建安四年, 先主劉備遣司馬關羽行徐州太守事. 五年曹操東伐擒羽歸, 袁紹遣其將顏良攻東郡, 羽刺良於萬衆之中, 操表羽爲漢壽亭侯.” 『三國志·勸進表』: “漢壽亭侯關羽, 新亭侯張飛.” 觀此, 則亭侯爲封爵之通稱, 而漢壽爲封邑無疑. 蓋漢壽在犍爲郡, 即今敘州府也, 後世訛爲 ‘漢’ 爲國號, 而以 ‘壽亭’ 爲封邑, 『會典』未之厘正也.”

57) 『明史』 卷50, 『禮四曆代帝王廟』, 北京：中華書局, 1974, 1293쪽. “初太公望有武成王廟, 嘗遣官致祭如釋奠儀.”

58) 夏元吉 監修, 『明太祖實錄』 권231, 洪武21年(1388)조, 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4.

한다면 洪武3年の ‘神號改正詔’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는 周나라 武王와 같은 王號를 누리는 것으로, 君臣의 예에도 어긋났다. 이에 朱元璋은 강경한 조치를 발효하여 太公望의 專廟를 버리고, 王號로 버렸으며, 太公望을 周武王에 從臣從祀하게 했다. 朱元璋의 이런 조치는 ‘국가 祀典의 제도화’를 통해 전통 윤리 준칙과 군주 진제주의를 확립하려는 ‘神號改正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편 기준에 부합하는 37位를 선별하여 中央에서 때를 정해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 明朝가 正統性을 계승한 왕조임을 천명했다. 이 외에는 모두 ‘淫祠’로 규정하는 ‘禁淫祠制’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태조의 과감한 禮制 개혁은 洪武27年(1394)에 변화가 생겼다. 南京에 역대 帝王, 功臣들의 묘와 함께 關羽 사당을 세운 것이다. 관우 신앙에서 廟宇는 특수한 문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곳은 중세 일반 백성들의 높은 文盲率과 불편한 交通, 그리고 폐쇄적 정보 사회 속에서 관우 신앙에 대한 강력한 傳播와 강화를 담당해왔다.⁵⁹⁾ 중국 역대 中央王朝 중 수도에 關羽 專廟를 세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⁶⁰⁾

이 달 漢壽亭侯 關羽廟를 (南京)雞鳴山 남쪽에 세웠다. 舊廟는 玄津橋 서쪽에 있는데, 이때 새로 지었다. 歷代 帝王과 功臣과 城隍廟를 나란히 하고는 통칭 十廟라고 했다.

(是月建漢壽亭侯關羽廟於雞鳴山之陽。舊廟在玄津橋西，至是改作焉，與歷代帝王及功臣、城隍廟並列，通稱十廟云.)⁶¹⁾

관우가 처음으로 國家級 祀典에 독립된 지위로 들어감으로써 각종 祭典도 거기에 맞춰 진행되었다.

漢前將軍壽亭侯 關公廟은 孟月과 歲暮에 應天府 관원을 보내 제사하게 하고, 5月13日에는 또 南京 太常寺의 관원을 보내 제사하게 했다.

(前將軍壽亭侯關公廟:四孟、歲暮遣應天府官祭, 五月十三日又遣南京

59) 趙世瑜, 『狂歡與日常-明清以來的廟會與民間社會』, 北京: 三聯書店, 2002, 58·75·86·87쪽.

60) 朱海濱, 『祭祀政策與民間信仰變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8, 31쪽.

61) 『明太祖實錄』 卷231, 洪武27年(1394)春正月條.

太常寺官祭.)⁶²⁾

祠廟와 祭祀를 중앙 관리하는 전문기구인 太常寺의 官員이 직접 關廟의 제사를 지냈다. 5월13일은 民間에서 關羽 탄신일로 기억되는 날이다. 여기서 1월·4월·7월·10월, 그리고 歲暮, 총6회 제사였다. 이는 十廟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이다. 특히 關羽廟는 祀典상으로 비록 ‘小祀’에 속했지만,⁶³⁾ 5월 13일에 한해서는 太常寺 官員이 한번 제사를 지냈으며, 그 祭品은 ‘太牢’를 사용했다.⁶⁴⁾ 이후에도 洪武年間(1368~1398) 朱元璋은 南京에 모두 14座의 祠廟를 세워 중앙 직속 祭祀 官廟로 삼았다. 물론 이 속에 漢前將軍壽亭侯廟가 포함되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태조도 건국 초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어 관우의 이용 가치를 확인한 것이다. 즉, 關羽는 명나라 통치의 보조 도구로서 “聖化의 不足한 부분을 보충하고”, “王化를 暗助”⁶⁵⁾하는데 사용되었다. 그가 가진 정통 왕조에 대한 충성심은 臣民에게 盡忠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어졌다. 태조의 뒤를 이어 3대 太宗은 자신이 ‘靖難의 변’을 일으켜 政權을 탈취한지라 절대적 권위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靖難 중에 관우의 保佑를 받았음을 강조하고, 永樂1年(1403) 宛平縣 東쪽에 관우를 위해 廟宇를 지었다.⁶⁶⁾ 그리고 永樂19年(1421), 北京

62) 徐溥 撰, 李東陽 重修, 『明會典』卷85, 『合祀神祇』(『影印文淵閣四庫全書』 617冊, 台北:商務印書館, 1986, 801쪽).

63) 명대의 국가사건 체계는 圓丘·方澤(地神에게 제사지내던 제단)·祈穀·太廟·社稷 등에 제사지내는 大祀, 天神·地祇·太歲·朝日·夕月·역대제왕·先師·先農·先蠶 등에 제사지내는 中祀, 先醫·關帝·文昌·복극성 등을 비롯한 30여 종의 신에 제사지내는 群祀로 나뉜다. 관묘 제사는 여기서 群祀, 즉 小祀에 해당했다. 張志江, 『關公』, 中國社會出版社, 2008, 176-177쪽. 흥미로운 점은 명나라에서는 小祀로 관우를 받들었지만 조선시대 영조는 小祀로 받들다가 정조 이후에는 中祀로 격상하여 받들었다.

64) 太牢에는 제사 때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과일 5종류, 비단 1종류를 제수로 썼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제사를 말한다. 朱海濱, 앞의 논문, 86쪽.

65) 朱國禎, 『湧幢小品』 卷20, 「關雲長」. “以補聖化之不足”, “暗助王化”

66) 太宗代에는 단순히 제사를 잇는 데서 벗어나 특별히 龍鳳黃旗 하나를 내려 尊崇을

으로 천도한 뒤에도 남경 十廟의 예를 따라 북경에도 유사한 제도를 세우고 關帝廟를 포함한 중앙 직속 祠廟를 세웠다.⁶⁷⁾

明代 關羽 神格化의 획기적인 계기는 13대 神宗 때라고 할 수 있다. 明代는 永樂(成祖1403~1424)·成化(憲宗1464~1487)·嘉靖(世宗1521~1567) 3대 연간에 걸쳐 정치적 부패, 몽골·왜구의 침입, 소수민족의 반란과 농민봉기 등이 겹치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특히 神宗 萬曆10年(1582), 張居正(1525~1582)의 改革이 실패로 끝나며 국력은 극도로 쇠망해졌고, 민족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어 통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神宗은 국가기구를 운용한 ‘法制’를 실시하는 한편 神力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투쟁심을 마비시키는 ‘心治’를 단행했다. 關羽는 ‘心治’의 과정으로 새로운 봉호의 하사와 함께 神格化되어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⁶⁸⁾

神宗은 萬曆18年(1590), 江淮 治水에 功이 있다하여 관우에게 ‘協天護國忠義大帝’라는 尊號를 내리고, 특별히 帝王의 면류관을 하사했다.⁶⁹⁾ 이는 관우가 ‘王’에서 다시 ‘帝’로 격상된 것으로, 본격적인 關帝信仰의 시작이었다. 萬曆 후반에 이르면 명나라는 상하 신분제가 해체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에 통치계급이 개선책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關羽 神靈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었다. 萬曆42年(1614) 10月11日이 되면 재차 加封하여 天地人 三界를 다스리는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는 최고의 神格으로 격상시킨다.⁷⁰⁾ 이를 계기로 마침내 관우는 강태공을 대신하여 武廟

표시하는가 하면, 매년 正旦, 冬至, 朔望 등 明初 6차에서 25次를 넘겨 지내기도 했다. 『古今圖書集成』卷37, 『關聖帝君部』, “每歲致祭”, “特頒龍鳳黃旗一, 揭竿豎之”, “每歲正旦、冬至、朔望”, “香燭等儀, 具有恒品”.

67) 孫承澤 撰, 『天府廣記』卷9, 『漢壽亭侯廟』, 北京古籍出版社, 1984, 101쪽. “廟祭於京師.”

68) 文廷海, 「論明清時代“關羽現象”的演變和發展」, 『四川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1999.11, 32쪽.

69)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卷37 『關聖帝君部』, 北京: 中華書局, 1934.

70) 하지만 신하들의 논란이 있어 실제로는 熹宗 天啓4年(1624) 7月, 太常寺 題請을 거쳐 정식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劉侗, 『帝京景物略』卷3, 『關帝廟』, 北京: 故宮出版社, 2013. “萬曆四十二年十月十一日, 司禮監太監李恩齋捧九旒冠、玉帶、龍袍、金牌, 牌書敕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 於正陽門祠, 建醮三日, 頒知天下. 然太常祭祀, 則仍舊稱. ……天啓四年七月, 禮部覆題得旨, 祭始

의 主神이 됨으로써 文聖인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武聖으로 文武二聖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⁷¹⁾ 이후로 관우는 ‘關聖帝君’이라 불리게 되었다.

명의 마지막 황제 毅宗은 지속적인 농민 봉기와 東北 後金の 침범을 당하자 더욱 天兵天將의 도움, 즉 關帝의 再世를 꿈꿨다. 하지만 명나라는 끝내 關帝의 陰佑를 받지 못한 채 왕조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비록 清代에 기술되긴 했지만, 朱梅叔(1795~?)의 『埋憂續集』⁷²⁾과 顧公燮의 『丹午筆記』⁷³⁾에 실린 이야기는 명대 통치자의 어리석은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清代가 되면 북방 이민족인 滿族에 의해 중원이 지배된다. 청대 초기 滿族은 명 왕조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권 내에서 왕조를 수립했었다. 때문에 北京으로 천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관공을 숭배하고 있었다. 관우는 유교적인 忠臣으로서 武神의 위엄을 갖추었기에 국가 변경 방어의 상징으로 숭상되었다. 동시에 義勇의 절개로 지역과 개인을 보호하는 守護神으로 숭배되었다. 청의 통치자들은 명 왕조와 마찬가지로 관우의 ‘忠義’ 정신을 선양하여 청 왕조에 충성하는 신화로 부각시켰다.⁷⁴⁾

伏魔呵嗔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靈異가 지극히 많으셔서 國初에 ‘關瑪法’이라 칭했다. ‘瑪法’은 國語로 ‘祖’이란 말이다.

(伏魔呵護我朝, 靈異極多, 國初稱爲‘關瑪法’. ‘瑪法’者, 國語謂‘祖’之稱也.)⁷⁵⁾

稱帝.”

71) 蔡東洲·文廷海, 앞의 책, 169쪽.

72) 朱梅叔, 『埋憂續集』卷1, 『乩書』. “崇禎時, 宮中每年或召仙, 或招將, 叩以來歲事, 無弗應者. 以前一召即至, 至是久不至. 良久, 玄帝下臨, 乩批云: ‘將俱已降生人間, 無可應召者.’ 上再拜, 叩以天將降生意欲何爲? 尚有未生者否? 批云: ‘惟漢壽亭侯受明深厚, 不肯降生.’ 批畢寂然, 再叩不應矣.”

73) 顧公燮, 『丹午筆記』. “崇禎末年, ‘寇’信急. 帝請關公降乩, 判曰: 妖麼甚多, 不可爲矣.”

74) 한편 滿族은 몽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유비에, 몽골을 관우에 비유하는 등 관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0, 2012.3, 245쪽.

75) 姚元之 撰, 『竹葉亭雜記』卷3, 北京: 中華書局, 2007.

여기서 伏魔는 관우의 봉호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이 관우를 별도로 國祖神으로 숭상하고 있었을 보여준다. 중원으로 들어간 뒤 청나라 정부는 명의 歲祭 關廟 풍습을 따랐다. 順治1年(1644), 關帝에 제사 지내는 예를 정하고, 地安門 宛平縣에 關廟를 重修했다. 그 규모와 법제가 확대되어 三門正殿에다 後殿은 5間을 짓고, 담 둘레도 60丈에 달했다. 붉은 색 기둥에 五彩로 棟梁을 짓는 등 지극히 화려해졌다.⁷⁶⁾ 제사 규정은 해마다 5月13日 太常寺 堂上官을 보내 致祭하게 하는 것이었으니 明代와 비슷한 셈이었다.

清代 통치자들은 중원에 들어간 뒤 전국적 통일을 완성하고 전 백성의 복종을 위해 다시금 관우의 加封을 시도했다. 順治9年(1652) 4月, 3대 世祖는 관우를 ‘忠義神武關聖大帝’에 봉했다. 여기서 ‘忠義’는 전국의 백성들이 청나라 왕조에 忠順하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大帝’는 생전에 보여준 관우의 강력한 武功을 고려해 明末의 ‘帝君’에서 격상된 칭호다.

그 뒤에도 제5대 世宗이 관우 先代를 孔子의 예에 따라 追封하는가 하면⁷⁷⁾, 京城 白馬關帝廟를 重修한 뒤 祭儀를 제정⁷⁸⁾하였다. 제6대 高宗 乾隆帝에 와서도 關帝와 三代에 대한 祭典은 계속적으로 발전했다. 고종은 乾隆25年(1760)에 올린 禮部의 주청⁷⁹⁾을 받아들여 乾隆33年(1768), 원래 시호를 바꾸어 ‘神勇’으로 삼고, ‘靈佑’라는 봉호를 하사하여 表彰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당시의 군사적 상황이 고려된 정치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역 新疆에서는 准部 阿睦爾撒納와 回部 大小와 卓木이 앞뒤로 일으킨 반란이 있었다. 청나라 조정은 급히 新疆에 파병하여 힘든 전투 끝내 난을

76) 文廷海, 앞의 논문, 33쪽.

77) 『清文獻通考』卷105, 『群祀一』. “追封 關帝 曾祖父 光昭公, 祖 裕昌公, 父 成忠公…授爲世襲五經博士, 以奉祀事.”

78) 雍正5年(1727)의 일로, 이때의 제의는 清初에 비해 자세하고 規範的이었다. 매년 春秋 季月과 5月13日 3차례 致祭하게 했다 祭品은 前殿은 太牢와 尊爵과 같이 하고, 後殿은 少牢와 尊爵과 같이 하고, 官員은 前殿에 大臣 1人을 보내 承祭하고, 後殿에 太常寺 堂上官을 보내 承祭하고, 行禮는 前殿에 三跪九叩를 행하고, 後殿에 二跪六叩를 행했다. 文廷海, 앞의 논문, 33~34쪽.

79) 『清高宗實錄』卷806, 中華書局, 1986. “關帝原謚壯繆, 實與功德未符. 順治九年加忠義神武之號, 名稱雖盛, 謚法未更, 今際武成大告, 式荷神麻, 請加更正.”

평정했다. 조정의 통치자들은 이 반란 평정을 정권 옹호의 기회로 삼아 關帝의 도움을 선진했다. 이에 關帝의 封號는 ‘忠義神武靈祐關聖大帝’ 10자에 달했다. 비단 封號를 하사한 것만이 아니라 “地安門 밖 關帝廟 正殿과 大門의 瓦色을 純黃琉璃로 바꾸었다.”⁸⁰⁾ 중국에서 黃色은 帝王의 전용색이며, 우리와는 帝王의 殿宇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다. 이렇게 신격화된 關帝가 청 황실을 위해 顯靈助戰한다는 것은 일반 백성의 반항을 진압하는 위협의 도구가 되었다.

이후 청대의 황제들은 농민 봉기와 지역 반란을 평정할 때마다 關帝에게 가봉하는 행위를 반복했다.⁸¹⁾ 그중 흥미로운 것으로 9대 文宗과 11대 德宗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문종은 咸豐7年(1857) 7月, “萬世人極”이란 편액을 親書하여 전국각지 關廟에 걸게 했다. 이 4字는 關帝 忠義精神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萬歲토록 人極이다”는 뜻이다. 여기서 ‘人極’은 일반적으로 ‘太極’과 비교되는 말로 周敦頤의 「太極圖說」가운데서 나온다. 太極을 우주 만물의 최고의 準則이라 한다면 人極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준칙이 된 사람, 즉 聖人을 말한다. “영원한 성인”이란 뜻이다. 통치자가 관우에게 준 최고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 臣民에 대한 문종의 윤리적 기대치를 반영한다. 또한 德宗은 光緒5年(1879), 神靈이 顯應했다는 이유로 山西省 永濟縣 關帝廟에 “祈年大有”이란 匾額을 내려주고, ‘宣德’을 加封한다. 여기서 “祈年”은 풍년을 기원한다는 뜻이고, ‘大有’⁸²⁾는 “火天大有卦, 乾下離上”의 易卦의 이름으로 역시 풍년이란 뜻이다. 즉, 한 해의 풍년을 의미하는 문구다. 이에 관우의 封號가 늘어나 26자에 이르게 되었다. 덕종의 加封은 그 주제가

80) 王傑修 撰, 『欽定大清會典事例』 卷438,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近於西師之役, 複昭蒙佑順”, “地安門外關帝廟正殿及大門, 瓦色改用純黃琉璃.”

81) 7대 仁宗은 嘉慶18年(1813), 白蓮教의 일파인 天理教 농민봉기를 진압했다하여 ‘忠義神武靈祐仁勇關聖大帝’로 봉했으며, 8대 宣宗은 道光8年(1828), 新疆 張格爾의 난을 평정했다하여 ‘忠義神武靈祐仁勇威顯關聖大帝’로 봉했으며, 9대 文宗은 咸豐7年(1857), 太平軍을 막고서 ‘忠義神武靈祐神勇護國保民精誠綏靖關聖大帝’로 봉했다. 급기야 德宗 光緒5年(1879)에 이르면 ‘忠義神武靈祐神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라는 26자 시호 등장하기도 한다. 구은아, 앞의 논문, 245~246쪽.

82) 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7, 48쪽.

비바람이 고르고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빌고, 이를 통해 군주의 威德이 宣揚되기를 기원하는 등 그 의미가 다채로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정치적 배려를 통해 關帝信仰과 關帝廟는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른바 “天下關帝廟，奚啻一萬餘處”說⁸³⁾이다. 清代中期에 이르면 北京 성내 關帝廟는 116개로 孔廟를 초과했으며, 전국적으로 30여 만 개에 달해 3000여 개의 孔廟를 크게 앞질렀다.

매년 4월8일은 關帝가 봉호를 받은 날로, 遠近의 男女가 모두 羊豕를 잡고,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俳優와 巫現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다. 秦·晉·燕·齊·汴·衛 땅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 檜棒을 시험하고 拳勇를 겨루며, 天下를 흔들어들었다.

(每歲四月八日傳帝於是日受封，遠近男女，皆割擊羊豕，伐鼓嘯旗，俳優巫現，舞燕娛悅。秦晉燕齊汴衛之人肩輶擊，相與試檜棒、校拳勇，傾動半天下.)⁸⁴⁾

이 자료는 關帝가 봉호를 받은 4월8일을 기해 벌어진 다양한 지역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 5월13일 탄신일을 기해 지내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일종의 축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통치계층에서 추존한 절정의 지위가 겹치면서 민간에서도 관우 숭배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⁸⁵⁾ 그 결과 관우 사당은 일반 백성들이 명절을 보내는 공공 오락 장소를 넘어 평소에는 휴식처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용한 상품 교역의 시장으로서의 기능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清代의 황제들은 항상 關廟를 직접 참배하여 關帝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제사의 기간이나 규모, 그리고 관우에 대한 加封에 있어 역대 최고의 수준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관우 神靈에 대한 간절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부패

83) 薛福成 編, 『庸庵筆記』 卷5, 「亡兵享關帝廟血食」,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83, 2쪽下.

84) 盧湛 輯, 『關帝聖跡圖志全集』, 北京: 線裝書局, 2003, 39쪽.

85) 이런 시대적 모습은 5대 世宗 雍正帝(1722~1735)의 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英廉 等 編, 『日下舊聞考』 卷44,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1, 698~699쪽. “雍正皇帝: 自通都大邑, 下至山陬海, 村墟窮僻之壤, 其人自貞臣賢士仰德崇義之徒, 下至愚夫愚婦, 兒童走卒之微賤, 所在崇飾廟貌, 奔走祈禱, 敬思瞻依, 凜然若有所見.”

한 권력과 시대의 흐름에 밀려가는 봉건제도는 이미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있었다. 결국 1911年 辛亥革命의 발발로 청나라는 망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실시하던 관우 祀典의 모습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VI. 結論

지금까지 본고는 歷史的인 고찰을 통해 관우 신격화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와 그 권위의 실상에 대해 추적해보았다. 魏晉南北朝 시대 일개 장군으로 묘사되던 관우가 隋·唐 시대를 거치며 武成王廟 從祀를 통해 국가 祀典에 편입되었고, 다시 宋·元 시대에는 ‘侯’에서 ‘公’으로, 다시 ‘公’에서 ‘王’으로 신분의 급상승을 이루었다. 관우 신격화가 절정에 이른 明·清 시대에 이르면, ‘王’을 넘어 ‘帝’로 등극하면서 三界를 통섭하는 최고의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듯 관우의 이미지는 역사에서 생활로, 영웅에서 神으로 변화되었다. 자연 神壇에서 家庭으로 들어옴으로써 백성에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생활 신앙과 도덕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 그는 정신적 守護神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역사상 통치자가 關羽에게 내린 封號는 다양했지만, 결국 국가의 재난 해소와 봉건 통치의 유지와 보호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이를 통치자들은 “人道로 綱常을 심고, 風教를 펼치는 것을 돕는다”⁸⁶⁾라고 미화했다.

현대 사회에서 관우는 새로운 사회 체제에 연착륙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즉, 봉건사회의 정치적 효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효력으로 바꾸어놓았다. 비록 정치적 목적은 경제적 목적으로 바뀌었지만, 關帝神은 인간의 기대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行業神’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일련의 조사에 의하면 관우 신앙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 동남아의 화교 집단거주지는 물론 이국에서도 광범위한 影響을 미쳐 143개 지역에서 엄밀한 조직 하에 공동 숭배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⁸⁷⁾ 한편 현대 관우

86) 張吉午 纂修, 閻崇年 校注, 『康熙順天府志』, 北京: 中華書局, 2009. “爲人道扶植綱常, 助宣風教.”

87) 吳松·易素貞, 「關羽崇拜現象形成的原因探析」, 『華北科技學院學報』第4卷第4期,

신앙은 有廟 숭배에서 無廟 숭배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⁸⁸⁾ 즉, 봉건사회의 특성상 至大했던 關廟의 역할과 武勇, 伏魔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났다. 대신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소형의 관우 神像을 집이나 상점에 모셔놓고 기원하는 無廟型 숭배로 발전한 것이다. 無廟型 숭배의 근원에는 절대적 관우의 財神으로서의 이미지가 깔려 있다. 財神으로서의 관우 이미지는 다분히 민간신앙 등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종교적인 관점과 민간 설화적인 관점에서 본 관우 신격화 양상에 대한 고찰은 후속 작업으로 남긴다.

❖ 참고 문헌

-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0, 2012.
- 김훈, 「현대중국사회 민간신앙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제20집, 2009.
- 남덕현, 「關羽 神格化의 요인 고찰」, 『中國研究』 46집, 2009.
- , 關羽 숭배의 근원, 『中國研究』 52집, 2011.
- , 「關羽 문화현상의 의의」, 『중국학』 40집, 2011.
- , 『英雄을 넘어 神이 된 사람 關羽』, 현자의마을, 2014.
- 원정근, 『忠義의 化神 關羽』, 상생출판사, 2014.
- 유상규, 『韓·中 關帝信仰의 史的 展開와 傳承 樣相』,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11.
- 이마이즈미 준노스케, 『關羽:三國志의 英雄에서 義理와 富의 神이 되기까지』, 이만옥 역, 예담출판사, 2002.
- 장지연,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東郊 壇廟의 의미 변화-근대 先農壇과 東關王廟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6집, 2009.
- 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7.

2002.12, 102쪽.

88) 김훈, 「현대중국사회 민간신앙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제20집, 2009. 322쪽.

- 전인초, 「關羽의 인물조형과 關帝信仰의 조선전래」, 『동방학지』 134집, 2006.
- 타즈마 요시스케(立間祥介), 『영웅의 역사』 6권, 윤소영 역, 숲, 2000.
- 董誥 編, 『全唐文』(全12册), 北京:中華書局, 2013.
- 盧湛 輯, 『關帝聖跡圖志全集』, 北京:線裝書局, 2003.
- 劉錦藻 撰, 『清朝續文獻通考』(全2册), 台北:新興書局, 1959.
- 劉侗, 『帝京景物略』卷3, 北京:故宮出版社, 2013.
- 薛福成 編, 『庸庵筆記』, 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83.
- 蕭常 撰, 『續後漢書』(全3册), 濟南:齊魯書社, 2000.
- 蘇軾 編, 『東坡志林』, 北京:中華書局, 1981.
- 孫承澤 撰, 『天府廣記』(全2册), 北京:北京古籍出版社, 1984.
- 宋祁 外 編, 『新唐書』(全20册), 北京:中華書局, 1975.
- 新文豐出版公司編輯部 輯, 『石刻史料新編』(總4輯), 台灣:新文豐出版公司, 1982.
- 王傑修 撰, 『欽定大清會典事例』(全12册), 北京:中國藏學出版社, 1991.
- 王欽若 編, 周勳初 校訂, 『冊府元龜』(全12册), 南京:鳳凰出版社, 2006.
- 姚元之 撰, 『竹葉亭雜記』, 北京:中華書局, 2007.
- 虞世南 撰, 『北堂書鈔』, 北京:學苑出版社 1998.
- 張吉午 纂修, 閻崇年 校注, 『康熙順天府志』, 北京:中華書局, 2009.
- 鄭樵 撰, 『通志』(全3册), 杭州:浙江古籍出版社, 2007.
- 趙翼, 『陔餘叢考』(全2册), 北京:中華書局, 2006.
- 朱謀瑋 箋, 王國維 校, 袁英光·劉寅生 標點, 『水經注校』, 北京:中華書局, 2007.
- 朱熹 著, 『朱子語類』(全8册), 北京:中華書局, 1986.
- 中國東方文化研究會曆史文化分會編, 『歷代碑志叢書』(全25册), 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98.
- 中敕 撰, 『大唐郊祀錄』, 北京:民族出版社, 2000.
-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全18册), 北京:中華書局, 1934.
-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全2册),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1.
- 郝經 著, 『郝文忠公陵川文集』, 太原:山西古籍出版社, 2006.
- 洪邁 著, 『夷堅志』, 北京:中華書局, 1981.
- 李瀾,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 金鐸, 『韓國의 關帝信仰』, 선학사, 2004.
- 李慶善, 『三國志演義의 比較文學의 研究』, 一志社, 1978.
- 盧曉衡 主編, 『關羽關公和關聖』,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 朱海濱, 『祭祀政策與民間信仰變遷』, 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8.

- 蔡東洲 等, 『關羽崇拜研究』, 成都:巴蜀書社, 2001.
- 閔寬東·裴垺程, 「國內 關羽廟의 現況과 受容에 대한 研究」, 『中國小說論叢』 45집, 2015.
-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齊魯師範學院學報』 第27卷第5期, 2012.10
- 劉永華, 「關羽崇拜的塑成與民間文化傳統」,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5年2期.
- 劉海燕, 「關羽刑象與關羽崇拜的演變史論」,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 文廷海, 「論明清時代“關羽現象”的演變和發展」, 『四川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1999.11.
- 孫建輝, 『關羽“武聖”政治角色的建構—以暈輪效應爲視角』,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吳松·易素貞, 「關羽崇拜現象形成的原因探析」, 『華北科技學院學報』 第4卷第4期, 2002.
- 王齊洲, 「論關羽崇拜」, 『天津社會科學』 1995年6期.
- 趙山林, 「南北融合与 关羽形象的演变」, 『文學遺產』 2000年04期.
- 朱海濱, 「國家武神關羽明初興起考—從薑子牙到關羽」,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1年1期.
- 焦磊, 『關羽神聖化過程的歷史考察—以關帝廟爲核心』,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包詩卿, 『明代關羽信仰及其地域分布研究』,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Guanyu'
Deification from Political Perspective

Bae, Kuy-Beom & Min, Kwan-Dong

This paper is an attempt to look up the life of Guanyu who was a sainted warrior of Shu Han(蜀漢) and later, was revered as God,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Chinese Dynasty. People represented Guanyu as the general during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魏晉南北朝), however, throughout the Su-Dang Dynasty(隋唐), Guanyu was Honored in the Wuchengwangmiao(武成王廟) then, was promoted from Hou(侯) to Gong(公), Gong(公) to King(王) in the Song-Yuan Dynasty(宋元). In the Ming-Qing Dynasty(明清) when the deification of Guanyu was proceeded most positively, he became a Di(帝) over a King and was endowed with the power over the Three Worlds(三界). He had an influence on nobility as well as the people in Folkbelief over Moral Spirits, and consequently rose through the ranks to become the spiritual guardian. The rulers gave him various names(封號) celebrating the life and work of Guanyu, In fact, they showed interests in the Belief of Guanyu as they attempted to establish an ideological base for the solution of the national disaster and maintenance of feudal system which came to the fore along with the reinforcement for emperor's power.

Key Words

Guanyu(關羽), Guan-di(關帝), the shrine of Wu(武廟), deification(神格化), loyalty(忠義)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04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